자타공인 태권시티 무주 거듭난다

무주군, 지역혁신사업 정책 자율과제 공모 '지역산업발전 부문(태권도 분야)' 선정

무주군이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에서 '지역산업발전 부문(태권도 분야)'에 선정됐다.

(재)전북테크노파크와 JB지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공모는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지역산업발전' 부문을 비롯한 '인력양성'과 '지역현안해결', '대학경쟁력강화' 부문에 올 한해 총 64억 원(지방비 포함)이 투입된다.

전주대, 우석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무주군은 △'태권도특별시 위상 정립을 위한 태권도 Hub 콘텐츠 활성화 사업'과 △'태권락(樂) 퍼레이드를 통한 지역문화 확산과 지속을 위한 문화 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각의 사업에 6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주대에서는 '태권도특별시 위상 정립을 위한 태권도 Hub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 △무주 특화 태권도 Hub 콘텐츠 거점센터 운영과 △반딧불축제 연계 태권도 상설공연 및 콘텐츠 개발, △반딧불-태권도 오감 체험, △굿즈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며 우석대는 태권도 공연을 넘어 '태권락(樂) 퍼레이드를 통한 지역문화 확산과 지속을 위한 문화창출 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태권락(樂) 연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태권락(樂) 퍼레이드 개최와 △태권락(樂) 퍼레이드를 주제로 국내외 퍼레이드에 참가, △야간 퍼레이드 관련 형광 물품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무주군과 협업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서 태권도를 활용해 돌봄과 교육, 취업, 정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태권도시티 무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무주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경쟁력이 돼 지역에 넘치는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치매예방체조 '호응'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초기치매환자 인지강화 도와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빠망 치매예방체조가 초기치매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AI) 빠망 돌봄인형은 진안의 캐릭터인 빠망에 인공지능(AI) 캡슐이 탑재된 봉제인형으로 지난 2022년부터 100명의 초기치매환자에게 보급해 치매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돌봄인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제작사(미스터마인드)와의 협업으로 치매예방체조 콘텐츠를 개발해 기능을 추가했다. 체조 기능을 추가로 5월부터 하루에 세 번 음성을 통한 치매 예방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초기 치매 어르신의 인지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은 빠른 속도와 작동으로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조에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인공지능(AI) 빠망 돌봄 인형은 매일 3번 반복적인 자연발화로 치매예방체조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배우고,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안군은 주1회 이상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진안군시니어클럽 생활지원사와 자원연계로 치매예방체조 보급을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AI) 빠망 돌봄인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진안 흑삼 산업 활성화 위한 업체 간담회 개최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는 지난 7일 진안 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흑삼 산업 현황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 및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흑삼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는 (재)진안홍삼연구소의 오효빈 가공발효실장이 진행하였다.

오효빈 실장은 "인삼을 세 번 이상의 증숙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이 흑삼으로, 농촌진흥청과 진안홍삼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흑삼 생산 표준화 기준 설정 연구를 통해 흑삼 제조방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 내 제조 특성 연구를 통해 흑삼 제조시 유효성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적합한 증숙 시간과 증삼 과정을 도출하였고 진세노사이드 성분 분석 완료 및 흑삼의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진안 흑삼 업체들의 정보 공유 및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고 총 8개의 흑삼 관련 업체들은 흑삼 관련 제품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진안 흑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태영 소장은 "연구소에서 규명하여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라 홍삼과 차별화되는 흑삼의 기능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진안 흑삼이 신규 건강기능 식품 원료 소재로 등록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흑삼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소와 농가 및 다양한 산업체 관계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진안군수)은 "이번 진안 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업체간담회를 통해 진안이 인·홍삼 및 흑삼 산업에서도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흑삼이 진안 농가와 업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켜 시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세대공감의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 무주군이 주관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 2백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을 비롯해 국악과 트로트, 한국무용 등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의 순으로 펼쳐졌으며 무주읍의 로라벨 씨, 무풍면의 이제현 씨, 설천면의 손민순 씨, 적상면의 이옥자 씨, 안성면의 권영희 씨, 부남면의 유학종 씨가 건강한 가정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무주군의회 의장 표창은 안성면의 김용출 씨, 임옥순 씨, 정정식 씨가 받았으며 안성면 박경식 씨를 비롯해 무주읍 김순남 씨, 황용웅 씨는 평소 부모와 지역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삶이 귀감이 돼 무주노인종합복지관장상을 수상했다.

황인홍 군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가족의 존재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온 부모님의 존재"라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빈곤과 고독이 아닌 풍요로움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복지행정을 통해 사회적 효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월 기준 8,606명(전체 인구의 37.1%)으로, 4,397명이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군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문해교실 등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어버이날 맞아 경로당 방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8일 어버이의 날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군은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민선8기 군이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온 폭넓은 노인 정책 지원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효(孝)사상 고취를 위한 효도수당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공동돌봄 사업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이·미용권 카드형 지급 및 네일 업체 확대 △노인복지관(장수·장계) 분리운영 등 차별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야간경관 명소화 추진

진안군은 8일 지질명소인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에 야간경관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의 경관조명 설치 구간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무지개다리 데크탐방로 1.8km으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억 2,2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경관 테마는 '구름따라 바람따라 흐르는 빛의 소나타'이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노적교부터 칠은교, 도덕정, 무지개다리까지 탐방 데크로드에 구간별 고보조명, 수목 등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지난 2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장수군은 8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오는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 업체는 장수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로, 지역의 다양한 공급업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공모를 통해 기존의 농·축산물,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지역 체험·체류형 상품 등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특색있는 답례품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군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유선으로(063-350-2140, 2009) 문의할 수 있다.

공급업체로 선정 시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5,830건의 기부를 통해 6억 4천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특히 장수사과는 전국 답례품 판매 1위에 오른 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